

이환경 감독 “순수했던 초심의 영화 찍어 보고 싶었다”

‘7번방의 선물’ 이후 7년 만에 ‘이웃사촌’ 개봉

“오달수 미투논란 주목받지만 작품엔 영향없어”

‘7번방의 선물’로 1280만 관객을 웃고 울렸던 이환경 감독이 7년 만에 신작 ‘이웃사촌’을 들고 돌아왔다.

휴먼 코미디의 정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진부한 신파라는 혹평도 적지 않다.

성추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오달수의 복귀작으로도 돌연 주목받고 있다.

25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환경 감독은 “‘7번방의 선물’ 성공 이후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초심의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다”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후련하고 행복하다”고 웃어 보였다.

이 감독은 영화 흥행 이후 2~3년간 베이징에 머물렀다.

한·중 합작 영화 연출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됐지만 다시 영화를 공부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컸다.

당시 크랭크인만 남겨둔 상황에서 ‘사드’ 사태가 벌어졌고,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2015년부터 ‘이웃사촌’ 집필에 들어갔다.

이웃사촌 1980년대 배경...가택연금 정치인 오달수 등장 ‘의식하지 않았다’

영화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귀국하자마자

가택 연금을 당하는 야당 총재 이의식(오달수)과 그의 옆집에서 24시간 도청 임무를 맡게 된 국가안보정책국 도청팀장 대권(정우의) 이야기로 그린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촬영을 마친 후에도 주연 배우 오달수의 ‘미투’ 의혹으로 개봉이 미뤄지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이 감독은 “미뤄진 만큼 좋은 영화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편집하고 끊임없이 녹음했다. 이 영화의 책임자이자 부모로서 모나지 않은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관객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달수의 미투 논란) 작품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 신경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다”며 “영화가 캐릭터 자체로 이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털어놨다.

휴먼 코미디 정석과 신파 사이...“내가 만드는 영화는 익숙함이 토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미디 속에 몽글한 감동을 담아내는 것이 이 감독의 주특기지만 휴먼 코미디의 보편적 공식을 따르는 연출 스타일에 누군가는 ‘정석’이라고 지적하지만, 누군가는 ‘신파’라고 깎아내린다.

그는 “나는 새롭고 신선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라”라며 “내가 만드는 영화는 익숙함이 토대”라고 운을 찘뼀다.

이어 “이미 있고 새로운 신파가 되도록 계속 그쪽을 더 팔 것”이라며 “연출이 빛나는 영화 보다는 배우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연기가 잘 보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배우에게 새 얼굴을 입히는 연출 스타일은 오달수에서 물어낸다. 8년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는 오달수는 그의 무기인 코믹을 빼고 진지하고 차분한 얼굴을 드러냈다. 따뜻하고 친근한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시대상과 맞물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인자한 정치인 역의 오달수가 감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자 이 감독은 “누아르 얼굴의 류승룡씨가 ‘7번방의 선물’을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한 모습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며 “오달수라는 배우에게 새로운 웃음을 입혀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번방의 선물’ 시나리오를 드렸을 때 오달수 배우가 가슴이 벅차고 미어져서 보다가 끊었다고 하더라. 코미디를 하고 남을 웃기는 재주만 있는 배우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부끄러웠다”며 “오달수 배우가 우리 작품을 통해 새롭게 보이길 바란다”고 보충했다.

‘정우, 숨소리가 들리는 연기 하는 배우’...작품 원동력은 단연 가족

극을 이끈 정우의 연기력에는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정우는 ‘의식’을 도청하는 도청팀장이자 그의 이웃인 ‘대권’ 역할을 맡아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차가운 눈빛을 지나 온기를 더한 묵직한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에게 몽글한 진심을 전했다.

이 감독은 “‘테두리’ ‘그놈은 멋있었다’ 오디오에서 정우 배우를 처음 봤는데 두려움 없던 연기자였다. ‘라이언 킹’의 어린 시절 심사를 보는 듯했다”며 “이번 작품은 17년 전에 봤던 어린 시절의 심사가 라이온 킹이 되는 순간이었다. 평면 스크린에서조차 살아있는 숨소리가 들리는 연기를 하는 배우다”고 추어올렸다. 이 감독은 ‘7번방의 선물’, ‘각설탕’ 등 따뜻

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를 줄곧 선보여왔다. 작품의 원동력은 단연 ‘가족’이다. ‘7번방의 선물’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것은 극 중에 나오듯 첫 딸인 예승이의 힘이 컸고, 이번 영화 ‘이웃사촌’ 역시 시나리오를 쓰면서 오달수 역할에 이의식이라는 아버지의 성함을 썼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단어는 가족이에요. 그분들에게 내 영화를 통해 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이런 마음으로 만든 영화가 많은 관객과 소통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모모랜드, 사이 손잡고 컴백...‘레디올랏’

그룹 ‘모모랜드(MOMOLAND)’가 가수 겸 프로듀서 사이(PSY)와 손잡고 컴백했다. 모모랜드는 17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싱글 ‘레디올랏(Ready Or Not)’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레디올랏’은 ‘강남스타일’의 한류스타 사이가 참여를 예고,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레디올랏’은 모모랜드가 처음 시도하는 ‘틴 팝(Teen Pop)’ 장르의 댄스곡이다.

색소폰과 업비트의 강렬함이 가미됐다. 특히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마음껏 뽐내겠다는 당돌함과 당당함이 제치 있게 표현됐다. 앞서 사이는 “모모랜드는 흥이 나는 음악을

더욱 신나게 잘 표현하는 걸이 잘 맞는 후배로 이번 신곡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데모곡을 들어본 후 곡이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작사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록곡 ‘메리 고 라운드(Merry Go Round)’는 모모랜드가 데뷔 4주년을 맞아 팬 ‘메리(Merry)’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을 담은 미디엄 템포의 R&B 곡이다.

2016년 데뷔한 모모랜드는 지난 2018년 메가 히트곡 ‘뽐뽐’으로 인기 그룹 반열에 올랐다. 미국의 에이전시 ‘아이시엠 파트너스(ICM Partners)’와 계약을 맺고 현지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여신강림’ 문가영 “차은우는 촌데레·황인엽은 목소리 매력적”

내달 9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

‘여신강림’ 문가영이 상대역 차은우, 황인엽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전했다.

다음달 9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되는 tvN 수목극 ‘여신강림’은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다.

역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상협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문가영은 극중 민낯을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메이크오버 여신 ‘임주경’ 역을 맡았다.

임주경은 외모 콤플렉스를 화장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초긍정 에너지와 해맑은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문가영은 “‘여신강림’은 밝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품이었다”며 “임주경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로,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주경이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캐릭터라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심지어 액션도 선보일 예정이니 주경이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극중 캐릭터와 비슷한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음악 취향이 닮았다”며 “평소 고민이나 생각이 많은 편인데 주경이는 무척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전했다.

아울러 “1회에서 주경이의 화장 실력이 출중해지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이러한 과정을 재미있게 촬영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상대역인 차은우와 황인엽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차은우씨는 촌데레 같은 매력적이고, 황인엽씨는 목소리가 매력적”이라며 “두 사람과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가영은 “‘여신강림’은 어른이 되어가며 누구나 한번쯤 겪어본 또는 겪게 될 10대들의 고민, 변화, 성숙이 그려지는 과정이 공감되고 사랑스럽고 설레는 드라마”라며 “각 인물들이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스

‘프듀 투표조작’ 2심도 실행...“연습생엔 평생 트라우마”

특정연습생 투표조작 및 접대받은 혐의

케이بل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1심 벌금형보다 오히려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를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되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번 이상 중복 투표를 한 경우 초과분은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씨 등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안씨 등의 기망행위와 중복투표로 발생한 문자 투표 수익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스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김씨와 안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음에도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무료 문자 투표 점수로 시청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유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기획사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 연습생이 방송 및 분량 편지에서 유리하게 하는 등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안씨에게 접대 등을 한 배임증대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안씨에게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기에 기획사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달사벳 출신 수빈, ‘4중 추돌’ 교통사고

병원서 치료중...생명 지장 없어

그룹 ‘달사벳’ 출신 수빈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17일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에 따르면, 수빈은 이날 오후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풍터널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관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지나인컴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다.

수빈은 지방 촬영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종합편성채널 MBN ‘미쓰백’ 녹화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다 사고를

당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빈은 병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미지나인컴즈는 “수빈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검사결과에 따라 당분간 일부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빈은 ‘미쓰백’ 촬영 중이다. ‘나야 나’ 등 다른 예능프로그램도 출연 중이다.

오는 12월 방송 예정인 웹드라마 ‘위시유’를 통해 연기자로 활동 재계에 나선다.